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성황 '2012 핑크리본 사랑마라톤대회'(주관 (주)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가 10일 오전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회는 유방 건강의식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광주, 서울,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교 여름방학 보충수업 단축 논란

광주교육청, 20시간 줄여…학부모들 "학력저하"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의 여름방학 기간 보충수업 시간을 특정 교원단체와의 협약을 근거로 대폭 축소하기로 해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고등학교에 '방과 후 학습 운영안내' 공문을 보내 이번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간을 1,2학년은 60시간, 3학년은 80시간으로 통보했다.

지난해보다 각 20시간씩 줄어든 것으로 1,2학년은 25%, 3학년은 20%가 줄었다. 1일 수업시간도 최대 5시간 이내로 묶었다.

장휘국 교육감 체제 이전에는 최대 100시간 이상 보충수업을 진행해왔다.

수업시간 단축은 시교육청이 지난 5월 전교조 광주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63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협약에서 "보충수업 시수는 여름방학은 고1·2학년은 최대 60시간, 고3학년은 최대 80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겨울방학은 고 1학년 100시간, 고2학년은 최대 1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하루 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방학중 보충수업 시간까지 시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와의 협약으로 규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전교조는 광주지역 교사 가운데 35%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이거나 가입하지 않았다.

보충수업 시간 규제는 다른 지역 교육청과도 비교가 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의 방학 중 보충수업 시간을 별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보충수업 시간이 줄면 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방학중 보충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미진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인데, 수업시간이 단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충수업 시간을 줄인 것은 주 5일제 수업으로 상대적으로 방학기간이 줄게된 데 따른 조치로, 최소한 권장시간을 학교에 알렸을 뿐 일괄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스 중독·전복…잇단 어선 사고

해상에서 작업중이던 어선 인부들이 어창(魚倉) 냉동고 가스에 중독되는가 하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어선이 갑판에 적재된 그물이 쏠려 전복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10일 새벽 2시께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북서쪽 3.5 마일 해상에서 목포선적 연안 안강망 22t급 309한일호에서 베트남 국적 네팡민(28)씨와 중국인 자우(32)씨가 어창 냉동고에 남아있는 암모니아 가스에 중독됐다.

목포해경은 경비중이던 123호 경비정을 보내 가스에 중독된 선원을 긴급 이송했으며 선원들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15분께 여수시 돌산대교를 지나 봉산항으로 입항하던 여수선적 자망 어선 다성호(29t)가 봉산항 50m 앞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다성호에 타고 있던 선장 김모(40)씨 등 승선원 7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뒤집어진 어선으로 올라와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이에 앞서 7일 오후 8시50분께는 신안군 압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여수선적 4t급 연안복합 어선 A호가 암초에 좌초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으로 경비정과 122 구조대,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선장 이모(64·여수시)씨 등 4명을 구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주거 지역 행정·복지 일체형 서비스

동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동명동에 내달 착공

광주시 동구가 동명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행정·복지 일체형 공공서비스 시설인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동구는 내달 동명3구역에 1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5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민커뮤니티센터〈조감도〉를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커뮤니티센터는 카페, 도서관, 공방,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문화·복지, 정보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여가와 휴식공간을 넘어 생활에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구는 커뮤니티센터를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모든 주민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여론수렴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구, 13일 다문화가족 초청 콘서트

광주시 남구는 "오는 13일 오후 6시30분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다문화가족 등 400여명을 초청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는 유지연 피아노트리오(유지연, 제갈소망, 홍지연), 베이스 함석헌, 소프라노 서활란 등이 출연해 영국민요 'Amazing Grace with Bach' 현악 3중주 등 10곡을 연주한다.

또 식전행사로 마술쇼가 진행되며, 스트레스검사, 모세혈관검사, 혈압, 당뇨 등 무료검진과 임신체험, 모유수유 캠페인 등도 함께 열린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포괄수가 반대 안과 의사들 "1주일간 백내장 수술 않겠다"

안과의사들이 포괄수가제가 전면 실시되는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관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대국민호소문에서 "포괄수가제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되는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안과 병의원들은 이미 대부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로, 현재는 7개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질병이나 환자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진료는 결국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떨어뜨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5시 17분 / 해짐 19시 43분
달뜸 00시 04분 / 달짐 12시 16분

오늘도 30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

광 주	구름많음	19/30℃
목 포	구름많음	19/26℃
여 수	구름많음	18/23℃
나 주	구름많음	18/30℃
완 도	구름많음	18/26℃
구 례	구름많음	18/30℃
강 진	구름많음	18/26℃
해 남	구름많음	18/26℃
장 흥	구름많음	18/26℃
순 천	구름많음	18/29℃
영 광	구름많음	18/28℃
진 도	구름많음	18/25℃
전 주	구름많음	19/30℃
군 산	구름많음	19/27℃
남 원	구름많음	18/30℃
흑산도	구름많음	18/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보통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7:16 19:43	12:43 00:00
여수	01:55 14:33	08:20 20: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날 씨						
최저/최고	20/28	19/28	18/28	18/28	19/28	19/29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 간선제 허용

주민 운동시설 외부인에 유료 개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에 간선제가 허용되고, 주민 운동 시설은 유료로 외부인에 개방할 수 있게 된다. 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적격 심사제를 원칙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입주민의 자율을 크게 확대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현행대로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되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별도로 관리규약을 정하면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잦은 선거로 인한 과열이나 비용의 과다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골프연습장이나 헬스장, 수영장 등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동 시설은 과반 찬성으로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사용료를 받고 외부인에 개방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률을 높이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연합뉴스

영암 대불대학교 세한대로 바꿨다

영암 대불대학교가 세한대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대불대는 2013년 개교 20주년을 맞아 충남 당진 제2캠퍼스 개교 준비와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세상으로 비상하는 인재들의 날개'라는 뜻의 '세한(世翰)'으로 교명을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교명 변경은 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이승훈 총장은 "개교 20주년을 맞아 '대불(지역명)'이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세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더 큰 세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